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 주일오전설교 | 바른 말씀을 지키자

[딤후 1:12]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를 인하여’라는 말씀은 앞절에서 말한 대로 ‘복음을 위해 전파자와 이방인들의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일 때문에’라는 뜻이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당하는 고난은 복음 전도자로서 받는 고난이었다. 그가 전도자가 아니었다면 그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고난의 길이다. 사탄과 세상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일을 가장 미워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의뢰한 자를 알고 그가 자기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의뢰한 자란 모든 성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또 바울이 의탁한 것이란 자기의 영혼과 생명 그리고 그가 사명으로 받아 힘쓰는 복음 사역과 그가 세운 교회들일 것이다. ‘그 날까지’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혹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를 가리킬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즉 사도 바울이 현재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고난들도 보시고 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우하실 것이다. 그는 또한 사랑이 풍성하시므로 자기 백성과 사랑하는 종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또 전능하시므로 그의 참된 종들을 도우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오직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 외의 일들은 그에게 맡기고 그의 처분을 기다리면 된다.

[13-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바른 말들의 개요를 지키고] 가지고 있으라.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들의

개요를 가지고 있으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써’라는 뜻이라고 본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으로써 바른 말씀들을 지켜야 하고 그래야 그것들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다.

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은 복음 전파의 일을 가리킨다고 본다. 전도의 직무는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에게 주신 전도자의 직무를 디모데는 끝까지 지키고 완수해야 했다. 그 직무의 수행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성령 곧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며 이것은 성도의 놀라운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와 화목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약속이었다(요 14:16-17).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듭나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엡 1:13; 고전 12:13). 로마서 8:9,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시며 우리 속에 거룩한 정신을 주신다. 또 그는 ‘위로자, 격려자’이시다(요 14:16).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주신 직무를 행하게 하신다(겔 36:27). 디모데의 복음 전도의 직무도 그의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수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일, 즉 그의 전도자의 직무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수하라고 교훈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제한적, 대략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아시아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했고 그를 버렸다. 디모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울을 버린 대표적 인물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다. 그들은 유명한 인물들이었던 것 같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이와 같이 평탄치 않았다. 그가 곳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말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했을 때 그의 괴로움은 매우 컸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경험하셨던 바이었다. 요한복음 6:60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이 어렵다고 말하며 물러갔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 이까?”라고 대답했다.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것은 그의 입장이 바르고 강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부드럽고 포용적인 말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온전히 따르기보다 적당하게 하기를 좋아하고, 악한 자들과 정면으로 싸우기보다 적절히 타협하고 절충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둠 사이에는 타협과 절충이 있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노하시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든지 지지하지 않고 반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전하고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

옛날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생활로부터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악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잘못된 점들을 고치는 개혁을 단행했다. 에스라 10:11,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느헤미야 13:1, 3, “그 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물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비록 반대자들도 없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바른 교훈과 인도를 따라주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있고 교회들 안에 이런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16-18절]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흠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공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얼마나 많이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다. 그것은 오네시보로의 집을 통하여 받은 위로이었다.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신 위로와 격려이었다. 우선, 그는 사도 바울을 자주 유쾌케 하였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때때로 피곤하고 지쳤을 것이다. 그러나 오네시보로의 방문은 그를 기쁘게 하였고 그를 격려했다. 또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참으로 믿을 있는 성도이었다. 세상 친구들은 사람이 부유하고 평안할 때는 가까이 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를 떠나간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졌을 때 그의 곁에 있었던 친구들은 소수이었다. 오네시보로는 그 소수의 사람들 중의 하나이었다.

또 오네시보로는 로마에 있을 때에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 금금되어 있을 바울을 수소문하여 찾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 마침내 그를 만났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며 재판날을 기다렸을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보로의 방문은 큰 위로이었을 것이다.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많이 섬겼었다. 디모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오네시보로는 여러 일들과 여러 방식으로 그를 도왔고 섬겼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네시보로는 주의 이름으로 소자(小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말세에 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보수하고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전해야 한다. 말세에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에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보수한다는 것은 외로운 길이지만, 바른 길이다. 그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고 말한 여호수아가 붙든 길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왕상 22:14)고 말한 미가야 선지자가 지킨 길이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그 옛길, 바른 길을 지켜야 한다.

둘째로,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포함하여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 고리의 동료들과 유명한 족장 250명은 모세를 대적했었다(민 16:1-2). 가롯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였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렸다(딤후 4:10). 지상 교회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의 편에 서지 말아야 한다.

셋째로, 오네시보로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 만났고 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 주께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제사장 임직식**

[출 29:1-9]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이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숫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겹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띠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 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제사장 임직에 대해 명령하셨다. 무교병(無酵餅)은 누룩 넣지 않은 떡이며 전병은 부꾸미(부침개)이다. ‘속옷’이라는 원어(코토넛)는 ‘일상적으로 주로 입는 옷’을 가리키며(BDB), 또 에봇 받침 ‘겹옷’이라는 원어(메일)는 ‘(소매 없는) 두루마기(robe) 겹옷’을 가리킨다고 한다(KB).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바르는 관유(灌油)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요 3:34).

[10-14절]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하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것에게 그의 죄를 전가(轉嫁)시킨다는 뜻이 있다. 속죄제 의식은 죄씻음을 상징한 제사 의식으로서 죄인들이 하

나님께 드려야 할 중요한 제사이었다.

[15-18절] 너는 또 숫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토막을 내고) 그 장뿔내장과 다리는 씻어 각 뜯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레아크 니코아크)(유화(속죄)의 향기)(NASB, NIV)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숫양 하나는 번제로 드려져야 했다. 제물을 온전하게 불태워 드리는 번제는 속죄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뜻이 있었다고 본다.

[19-21절] 너는 다른 숫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다른 한 숫양은 위임식 숫양인데, 그것의 피를 아론의 오른 귓볼과 그 아들들의 오른 귓볼과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것은 그들이 듣는 것과 만지는 것과 행하는 것에서 거룩해야 함을 보인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을 거룩케 해야 한다. 아무도 죄로 더러워진 채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22-25절] 또 너는 그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숫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유화의 향기)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요제(搖祭)는 ‘흔드는 제사’(wave offering)이다.

[26-28절] 너는 위임식 숫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거제물(擧祭物)은 하나님께 ‘드는 제물’(heave offering)이다.

[29-30절] 아론의 성의(聖衣)는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론의 거룩한 옷은 아론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며 그들은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 7일 동안 그것을 입어야 했다. 아론의 거룩한 옷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상징했다고 본다.

[31-34절] 너는 위임식 숫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위임식 숫양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이며, 그 고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한 곳에서 삶아서 광주리의 떡과 함께 먹어야 했다.

[35-37절] 너는 내가 무릇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케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네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모세는 그들과 함께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고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케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게 해야 했다.

[38-46절] 네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된 어린양 두 마리니 한 어린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양에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 1과 짙은 기름 힌의 4분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힌의 4분 1을 더할지며 한 어린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러 향기로운 냄새유화의 향기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라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번제로 매일 1년된 어린양 두 마리를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려야 했다. 전제(奠祭)는 ‘붓는 제물’이다. 에바는 약 22리터이며 힌은 약 4리터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과, 또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복되고 은혜로운 약속을 하셨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제사장들은 위임식 숫양의 피를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했다(20절). 신약 성도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벧전 2:9).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듣는 것, 만지는 것, 행하는 일에 조심해야 한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에게 헌신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롬 12:1).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 그는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 중에 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는 우리들을 만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

## 수요일 설교

## 여호와와의 종

[사 42:1-13]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 . .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본문에 예언된 ‘여호와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 얻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1: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의로 부르셨다. 그는 우리의 의가 되셨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로마서 3:21-24,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 . .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셋째로, 온 세계에서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에베소서 5: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히브리서 13:15,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

○ 김효성, **조직신학**. 2판. 627쪽.

○ 김효성, **로마서 강해**. 3판. 145쪽.